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9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9.(목)	담당부서	온실가스감축팀
담당과장	양정화 팀장(044-203-5160)	담 당 자	이한솔 사무관(044-203-5163)

산업부,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

- 국내 제도설계방안(안)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-
-「민간 탄소시장 제도설계」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6월 9일(목) **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**를 위한 **논의의 장***을 마련하였다.

* **일시/장소** : '22. 6. 9(목) 15:00~17:00 / 대한상의
참석자 : **(주관)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, 한국표준협회장**
(증권사) SK증권, NH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
(업계) 플랫폼업체(네이버, 카카오), **업종별 협회**(철강, 시멘트 등), 관심기업 등

○ 이 자리는 현재 **한국표준협회**가 수행 중인 「**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**」의 **중간발표회**로서, **제도설계**(안) 공유, **업계 의견 수렴** 및 **전문가 논의**가 이루어졌다.

□ **민간주도**의 **자발적 탄소시장***(Voluntary Carbon Market)이란, **법적 규제와는 무관**하게 **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**이 참여하여 **탄소크레딧****을 거래**하는 시장으로, **시장운영방향**도 **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** 된다.

*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'21년 10억불에서 '30년 500억불로 성장 전망('21년)

**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(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)

※ [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(Compliance Carbon Market)((예) 배출권거래시장)]
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,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 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

<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('21년 기준) >

	VCS [미국] (Verified Carbon Standard)	**ACR** [미국] (American Carbon Registry)	**CAR** [미국] (Climate Action Reserve)	**GS** [스위스] (Gold Standard)
운영기관	Verra	WI	CAR	WWF 및 기타 국제 NGO
시작연도	2007	1996	2001	2003
사업범위	아시아, 북미, 등	미국	미국, 멕시코	전세계
사업현황	1,697개 사업 등록	470건	676건	약 2,000건
발급현황	6.05억 톤(1.62$/톤)	1.72억 톤(5.38$/톤)	1.65억 톤(2.34$/톤)	1.73억 톤(5.27$/톤)

□ 최근 글로벌 무역·투자환경은 **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**을 중심으로 **빠르게 재편**되고 있다. 특히, **미국 증권거래위원회**(SEC), **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**(ISSB) 등은 **기업 가치사슬 전반**(Scope 3)에 대한 **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**하고 있다.

* **직접배출**(Scope1) : **연료연소·공정가스**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
간접배출(Scope2) : 외부로부터 구매한 **전기, 열, 스팀**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
외부배출(Scope3) : **물류**, **출장** 및 **판매한 제품 사용**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

○ 이에 따라, **공급망 직·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**의 **중요성**이 부각되고 있다.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**수출시 납품조건**으로 **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**하는 경우가 **증가**하고 있다.

□ 이에 대응하여, 우리 기업들은 **민간 탄소시장**을 통해 ▲**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**, ▲물류·플랫폼·철강·시멘트 등 **직접감축에 한계**가 있는 기업의 **감축실적 확보**, ▲**ESG 목표 달성**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**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**은 "최근 ESG 평가는 **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**되는 상황에서 **민간 탄소시장**을 활용한 **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**받고 있다."고 언급하며,

○ "**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**(15개 업종, 50개 이상 업체)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**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**인 만큼, **금융권·산업계**의 **많은 관심**과 **참여를 부탁드린다**"고 밝혔다.

□ 한편, **산업부**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**업계 의견수렴 결과**를 **반영**하여 **최종 제도설계안** 및 **시장 지원방안**을 **마련**하고, 현재 **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**들이 **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**할 수 있도록 **다각적으로 검토**해 나갈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이한솔 사무관(☎ 044-203-51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